

야훼께서 돕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실패한다

■ 본문

시 127:1-5

■ 시작 찬송가

285, 214, 210장
(통 209, 349, 245장)

■ 헌금 찬송가

320, 432, 455장
(통 350, 462, 507장)

▶ 성도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시는 하나님

1. 하나님은 때를 따라
물질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
심(레 26:5)

2.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한 바를 구하여야 함
(대하 7:14)

● 사람에게 충분한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a. 조상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주심 (창 13:1,2)

b.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풍성한 땅을
허락하심 (신 7:13)

c. 곡식과 가축의 소산을
풍성히 주심(사 30:23)

d. 영혼의 복을 허락하심
(시 130:7)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건지는 길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길도 오직 하나, 기도 밖에 없습니다.

시 127:1-5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1.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1) 집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집을 짓는데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그 집은 무너지고 망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집은 사람이 짓지만, 믿음으로 지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돈과 힘 그리고 권력 만으로 지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혼도, 가정도, 기업도, 직장도 모두 집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잠 24:3-4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2) 교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안주시는데, 땅과 노력 그리고 수고와 같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헛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능력과 배경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오래가고 영원하며 부작용이 없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되게 하신 분도, 루즈벨트가 미국 역사 가운데 유일한 4선 대통령이 된 것도, 모두 한 가지 이유 곧 하나님의 복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시 121:1-4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3) 교인을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교인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 땅을 떠나는 그 날까지 위기 때마다 거기서 나를 돕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손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만나면 질병, 사고를 만나면 사고, 화난을 당하면 환난 중에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결국에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 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2.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1) 교인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째 복이 잠이라 했습니다. 잠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은 평안과 살롬입니다. 어떤 일에도 두려움이 없기에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걱정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가정도, 직장도, 자녀도, 미래도 모두 맡깁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지켜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시 46:1-3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뿔끓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2) 교인은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둘째 복이 자식이라 했습니다. 젊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젊은 가정에 자녀를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 주신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일 좋은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노후에 부모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비록 힘이 없을지라도, 자녀들이 힘이 있으면 노부모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잠 23:24-25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시 128:3-4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3) 교인의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느 것보다도 기도의 힘이 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어느 능력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인은 잘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잘 살게 하시고, 아이디어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약한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신 5:32-33 **그러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죄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오늘의 한마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공동
기도
제목

1. 나라와 민족의 안보와 통일을 위하여
2. 대통령과 3부요인 및 여야의원들을 위하여
3.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회개와 굶주리는 주민들을 위하여
4. 군에 입대한 자녀들과 해외유학생들을 위하여
5.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및 해외선교사를 위하여
6. 탈북자와 새터민, 이주노동자들을 위하여
7. 에너지(물, 전기 등) 절약을 통한 생태계 환경보전을 위하여
8. MCM, 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및 C채널 방송선교를 위하여
9.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출산장려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 기적을 일으킨 기도

- 홍해를 가른 모세의 기도 (출 14:21)
- 요단강을 가르고 합치는 여호수아의 기도(수 4:15-18)
- 태양을 머물게 한 여호수아의 기도(수 10:12)
- 징표를 구한 기드온의 기도 (삿 6:36-40)
- 마지막 힘을 구한 삼손의 기도(삿 16:28-31)
- 죽은 아이를 살린 엘리야의 기도(왕상 17:21-22)
- 번제단에 불을 내리게 한 엘리야의 기도(왕상 18:36-39)
- 번제단에 불을 내리게 한 다윗의 기도(대상 21:26)
- 앗수르 군사 십팔만 오천을 물리친 히스기야의 기도 (사37:14-36)
- 해 그림자를 십도 물러가게 한 히스기야의 기도 (사 38:1-8)
-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의 기도(행 9:40)

▶ 기도해야 하는 이유

-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마 6:9-13)
-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요 14:13)
-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심 (롬 8:26)
-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삼상 12:23)
- 사탄의 음모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마 26:40-44)